

# 만찬 환영사

2016. 10. 24

뱅크스 클럽

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금 융 위 원 회

임 종 룡 위 원 장

## I. 환영인사

안녕하십니까.

금융위원회 위원장  
임종룡입니다.

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 서울에서  
짜란 짜른수완(SARUN Charoensuwan) 태국 대사님\*을 비롯한  
아세안 각 국 대사님들을 만찬에 모시게 되어  
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.

\* ASEAN Committee in Seoul 의장

재참석 (‘15년참석)	-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라오스, 브루나이
’16년 신규참석	- (대사 신규부임) 태국(‘16.3월), 미얀마(‘16.1월) - (작년 대리참석) 베트남

※ 필리핀, 캄보디아는 대리참석

올해 새로 부임하신 미얀마(뚜라 텃 우 마웅)대사님의  
한국부임도 늦게나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

이렇게 시간을 내어

참석을 하여 자리를 빛내주신

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,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님과

은행장님들에게도 모두

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그리고 **Growing Together** 라는 제목으로

한-아세안 협력에 대해 발표를 해주실

신성환 금융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.

## II.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

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는

**1989년 대화관계 수립\*** 이후

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.

\* 1989년 부분(무역·투자·여행) 대화관계 수립, 1991년 완전대화관계 구축

오늘날 한-아세안 교역규모는 1,20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,  
양측 인적 교류도 연간 675만명에 이르는 등  
아세안은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.

안보에 있어서도 2010년

**전략적 동반자 관계**를 구축한 이래

정치·안보 포럼 등을 통해

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,

**문화적 측면**에서는

한-아세안 쌍방향 교류를 위한

아세안 문화원이 건립되는 등\*

\* '16년 3월 기공식 진행 (부산)

**한국과 아세안은**

경제, 안보,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

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

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

## III. 아세안의 성장

내외 귀빈 여러분,

아세안 국가들의

경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.

90년대에 비해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
**2배 이상 증가\***하고 무역규모도 약 8배 성장\*\*하였습니다.

\* ('90년) 1.5% → ('13년) 3.1%

\*\* ('90년) 3,066억달러 → ('13년) 2조 5192억달러

작년 말 공식 출범한 **아세안 경제공동체(AEC)\***는

단일시장과 생산기지 구축,

균등한 경제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

아시아의 경제 통합을

**가속화** 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.

\* ASEAN Economic Community :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결성('15.12.31일),  
제품, 서비스,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

한국정부(산업부)는, 아세안 경제공동체의

이러한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

2025년까지 **총생산량이 연간 7%증가**하고,

**1,4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** 것으로

기대하고 있습니다.

## IV. 한국과 아세안의 금융협력

작년에 출범한 AIIB는  
이처럼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 
아세안과 한국의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.

대통령께서도

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+3(한·중·일) 정상회의에서  
금융안정망 강화를 위한 **치앙마이 이니셔티브\***(CMMI)의  
**역할확대**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.

\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: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 
ASEAN + 3(한·중·일) 회원국에 위기 발생 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 
내용을 담은 협약(10.3월 발효, 현재 2,400억 달러 규모)

그러나

금융협력에서 **보다 큰 진전**을 이루기 위해서는  
**실질적 참여자인 금융회사간의 교류도**  
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은행장님을 비롯하여,  
**경험과 역량을 가진 한국의 많은 은행들은**  
아세안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매료되어  
**아세안 시장 진출**에  
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

아세안 금융당국과 **금융협력포럼**을 개최하고  
**협의채널을 정례화** 하는 등  
한-아세안간 금융협력 강화에  
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하지만

**관련 규제와 행정관행**이 우리와 다르고,  
현지 **금융당국에 접근**하기도 쉽지 않아  
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금융협력 사업을  
원활히 진행하는데 **많은 어려움**이 있습니다.

이곳에 참석해주신

**아세안 대사님들**께서는

**본국 금융당국과의 가교역할** 등

은행을 비롯한 한국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 
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 
부탁드립니다.

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

아세안 금융회사들의 **한국진출** 관련 애로사항,  
**한국의 경험공유** 등  
대사님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 
적극 **협조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IV. 맺음 말씀

---

내외 귀빈 여러분,

작년 8월에 이어 개최된 이번 만찬 간담회는  
이 모임이 **정례화** 되었다는  
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

이 행사가,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 
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 
**교류와 소통의 장**으로  
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.

[pause]

한국은 지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 
**완연한 가을**의 중심에 있습니다.

대한민국에는 숨겨진 보물과  
같은 곳이 많습니다.

오늘부터 시작되는 **여행주간\***을 맞아  
가을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산과 강으로  
여행을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
\*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봄과 가을에  
일정한 시기를 정해 관광을 장려하는 제도 (10.24일 ~ 11.6일)

감사합니다.